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 누가복음 16장 1-16절

Tag: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됴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눅 16:1-16)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셨던 가치관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관 운동을 하셨다. 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탁월하셨기에 말씀으로도 충분하셨지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기적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시고 제자들만 깨우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국민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베풀어지는 나라다. 완벽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는가? 모든 국민의 소망과 이상이 가장 잘 실현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그 뒤를 이어 진행하시고 계신다.

물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그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10개국도 앞장서고 있다고 보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온전하게 실현될 것이다. 초월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한다. 천국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17:20-21)

예수님께서 관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나라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 구약적 의미의 패러다임은 요한의 때까지 이다.
- 신약적 측면에서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의 시대에서 구약을 볼 때 구약은 신약시대를 위한 예비 시대가 된다.
- 그 후, 즉 예수님때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
-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패러다임을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돌진하게 되는데
- 그 이유는 그 가치가 대단히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름지으셨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을까?

- 영생에 대한 가치관.
- 그는 비리가 적발되어 직무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고리청부업자임)(기름 백말-천 데나리온. (기름 50말. 500데나리온 이익;500*20만=1억) 밀 백석-은 2500 데나리온. (밀 20석. 500데나리온 이익))
-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돌볼 수 있게 하였다.
- 주인에게는 삭감된 새 계약서를 넘겨주고, 원 계약서에는 그 차액을 기록하여서 그 차액만큼을 자기와 채무자가 함께 보상받자는 계획이었다.
- 지혜로운 청지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재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도모한 셈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점을 칭찬하였다.
- 미래를 도모하는 지혜를 칭찬함. 그것이 곧 영생을 도모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돈이 지금 내게 지불되는게 아니다. 미래에 지불되는 것이다. 미래에 환급되는 것인데 현재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그 돈은 내 돈도 아닌데 나에게 환급되는 돈이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청지기는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주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재화를 가로채는 셈이 되었

다. 애초에 그가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것이 실직의 이유였고, 재계약을 통해서 주인에게 마지막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청지기로서 해야 할 도리는 아니었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는 지혜

-청지기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불법을 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청지기로서는 자기에게 있는 이자를 계산하는 재량권을 재 행사 한 것이다. 한마디로 영업력을 발휘한 셈.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도의적이지는 않지만 살길을 도모했다는 것. (종종, 성경은 살아남기 위한 혈투에 대해서 인정을 보여준다. 침노라는 말과 의미가 통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억척같이 애쓰라는 의미. 피터지는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듯이, 그런 억척을 영생을 얻기 위해 사용하라는 뜻.(악착;이빨로 물어뜯는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이 되어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억척스럽게 살게 하셨다. 이 말은 욕심 사납게 살고, 불법을 저지르며 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라는 뜻이 아니다.

-얼마든지 게으르게 살수도 있고, 홀로 산 속에서도 살 수 있고, 내가 번 돈으로 내 한몸 건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억척이 아니다.

-억척스럽게 사는 이유는 사랑하는 내 식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 눈치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

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구차하게 살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처럼은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량처럼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자기의 몫을 주신다고 약속 하셨다.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세속적인)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무 자신이 천사인양 나는 아무런 욕심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뜻. 하나님은 우리를 욕심스럽게 지으셨는데, 억척스럽게 살도록 하신 것이지, 욕심을 부리라는 의미는 아님.

-또, 모든 재물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라질 것들. 그렇다고 산업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님. 성경에는 재물의 긍정적 의미도 많음.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눅 16:16)

14 <율법과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눅16:14)

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마 11:13)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